

“책임 있고 투명한 재단...5·18 세계화 앞장”

윤목현 제16대 5·18기념재단이사장 취임

“제 삶의 궤적과 맞닿아 있는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단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목현(69·사진) 제16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오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실천과 연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은 5·18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내빈 소개, 축사, 임명사, 취임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이사장은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섰고 이후 언론인과 시민운동가, 공직자의 길을 걸으며 오월 정신을 지키고 알리는 데 매진해 왔다”며 “오늘 취임함으로써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강조

유공자 예우·기록물 가치 제고도

“경청·실천·연대로 민주주의 수호”

써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 부여 ▲보상·예우 확대를 위한 연금법 개선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체계적 활용 ▲국내외 청년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향후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윤 이사장은 “오랜 세월 소외됐던 유공자들이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5·18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5월의 진실을 세대와 국경을 넘어 공유하는 일에



재단이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5·18기념재단은 단순히 기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고 연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경청과 실천, 열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원순석 제15대 이사장은 “지난 3년은 재단의 기틀을 세우는 시기였다”며 “이제는 모든 임직원과 유공자가 힘을 모아 자존감을 세우고, 윤 이사장이 더 튼튼한 재단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에 참여해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투옥됐으며 무등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편집국장, 부사장, 고문을 역임했다. 이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국장,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주성희기자

김태진 목포해경 경감 행안부 ‘모범공무원’ 영예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김태진(경감·사진) 수색구조계장이 해양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모범공무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007년 해양경찰에 입직해 올해로 18년째 현장에 몸담고 있으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올해 수색구조계장으로 부임한 이후 해양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해양사고 리스크 관리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풍력발전단지 해양사고 대비 대응 계획’을 세우는 등 서해안 사고 예방과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김 경감은 2021년 해양경찰청 근무 당시 미국 해안경비대(USCG) 국외훈련에 참가해 현장 직무교육과 이동교육훈련팀 운영 체계를 연구했으며, 이를 국내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에 접목시켜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김태진 경감은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정해선기자



고영철 광주문화신탁 이사장, 조선대 발전기금 1억 기부

고영철(사진 왼쪽) 광주문화신탁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하며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탤다.

1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관 2층 청출어름에서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기부식에는 광주문화신탁 고영철 이사장·최영근 상임감사·최현규 전무, 조선대 김충성 총장·황은용 경산대학장·김현우 대외협력처장·위성욱 대외협력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고 이사장은 조선대의 웰 에이지 기반 글로벌 대학30 선정과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지난해까지 기부한 9천만

원을 포함하면 누적 후원금은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광주문화신탁은 1988년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신탁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과 조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영철 이사장은 “신탁은 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힘써 왔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 인재 육성과 조선대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화순 키즈라라, ACC서 ‘꿈꾸는 직업 놀이터’ 운영

화순 키즈라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 새로운 융합 어린이 직업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7-8월 두 달 간 ‘2025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키즈라라의 인기 직업 체험 콘텐츠와 ACC재단이 발간한 아시아 각국의 그

림책 5권을 연계해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작했다.

구르구르 음료연구소에서는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통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환경 음료를 직접 만들어보는 ‘물과 자연을 지키는 음료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더 풍성한 배움과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동강대 RISE사업단, 광주RISE센터와 간담회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대학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광주RISE센터와 대학 RISE 추진 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영남 동강대 RISE사업단장과 위형도 센터장, 단위과제별 책임교수와 김보현 광주RISE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신청, 모든 과제 선정돼 기획력과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동강대는 ▲인재 SKILL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INNO UP 등 4개 프로젝트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수행한다. /김대기자



전영남 RISE사업단장은 “광주RISE센터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 예비 인재 양성과 창업 인프라 고도화, 기술-인재-산업 연계형 협력체계 조성, 복지·의료 융합 인력 양성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성과 중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소방, 파라과이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사업 성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3년간 추진해 온 ‘파라과이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파라과이 현지에서 교육훈련단 6명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자위소방대원 4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귀국했다.

교육훈련단은 광주소방의 선진 소방기법과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전수하며 파라과이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응급 의료 서비스 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변은진기자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8년부터 펄프차, 구급차 등 총 4대의 소방차량을 파라과이에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소방차 1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혁환 시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과장은 “이번 협력은 파라과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광주소방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가수 송가인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4일 가수 송가인을 2025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업타운에서 진행된 위촉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집행단 대표이사과 박관수 사무국장, 홍보대사 송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 위촉장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송가인 팬클럽 ‘어게인(Again)’의 지역 회원 10여명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송가인 홍보대사는 홍보를 촬영, 개막식 공연을 비롯해 박람회 홍보 콘텐츠 전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송가인 홍보대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업이 지닌 매력과 가능성을 국민과 즐겁게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감성과 대중성이 결합한 홍보를 통해 박람회 메시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23-29일 전남농업기술원 일원(나주 산포면)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개최된다. /김재정기자

담양 월산면 지사協, 어르신들 재배 옥수수 나눔

담양군 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수확한 옥수수를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옥수수 재배는 협의체 위원이 무상 제공한 유희지에서 이뤄졌으며, 협의체와 어르신들이 함께 약 3천개의 옥수수를 수확했다. 이 옥수수는 관내 2개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돼 여름철 간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임 월산면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애써준 협의체 위원들과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과 나눔 활동



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신안소방, 노후주택 화재 예방 간담회

신안소방서는 “최근 신안군청과 함께 ‘노후주택 화재 예방 및 집중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신안소방서 관계자 2명과 신안군청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이 참석해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노후주택 화재 사례를 공유하며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중심으로 한 화재 안전 전수조사 및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분말소화기 우선 보급 ▲마을 단위 소방 안전 순회교육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안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신안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은 “노후주택은 초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화가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기자



장흥경찰,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군과 함께 수문해수욕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경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피서객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해수욕장 이용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였다.

장흥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까지 단속 활동을 이어간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습 위반 지역 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원원 장흥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기초질서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및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홍록기자